

# 전략적 유연성 재점화되나...“美, 韓 명시적 동의 희망”

WP “무역협상 과정에서美측이 검토한 요구사항 리스트에 포함”

韓 ‘동맹 현대화’ 추구하되 中과 불필요한 갈등 피해야할 상황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한국의 명시적 동의를 원하는 정황이 미국 언론에 보도되면서 향후 한미정상회담 또는 그 이후 한미 안보협의 계기에 이 문제가 중요 의제로 부상할지 주목된다.

전략적 유연성은 한국군과의 공조 하에 대북 억제력을 주목적으로 삼아온 주한미군의 활동 반경을 대중국 억제 등을 위해 확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8-9월 중으로 예상되는 새 국방전략 발표를 앞두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를 추구할 것이라는 관측은 그간 꾸준히 제기돼왔다.

김슬리 월슨 미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8일(현지시간) 한·미간에 논의되고 있는 ‘동맹 현대화’가 ‘한반도와 그 너머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역

지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힌 것도 결국 주한미군의 역할 또는 활동 반경의 확대를 상징한 발언으로 읽혔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유력지 워싱턴포스트(WP)는 9일 미국이 한·미 무역협상 국면에서 한국에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공개적 동의의 요구를 검토했던 정황을 보도했다.

WP는 한·미 무역협상의 관련 미국측 초기 초안에 “대북 억제력을 계속하는 동시에 대중국 억제력을 더 잘하기 위해 주한미군 태세의 유연성을 지지하는 정치적 성명을 한국이 발표할 것”이라는 내용이 한국에 요구할 사항의 하나로 적시돼 있다고 소개했다.

관세를 타국의 정치·경제·안보 관련 양보를 얻어내는 자렛대로 적극 활용하는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과의 협상에서 얻어낼 요구사항 목록

을 범정부적으로 정리할 때 미 국방부나 국무부 또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이 같은 요구를 하지고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말 한·미간에 관세를 인하를 포함한 무역협약의가 나올 때까지 실제로 미측이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한국의 동의를 요구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한국의 명시적 동의를 얻어내는 방안이 미국 정부 내부에서 제기됐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문제가 향후 한·미정상회담 등에서 구체적으로 부상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한·미동맹을 중국 견제 쪽으로 보다 적극 활용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지가 분명한 이상, 전략적 유연성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미측은 현재 진행중인 전세계 미군 주둔에 대한 재평가 계기에 주한미군 감축 옵션을 꺼내들며 압박을 하려 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인다.

이와 관련 피트 헤그레스스 현 미 국방장관의 수석 고문을 지낸 덴 콜드웰은 싱크탱크 ‘국방우선

순위’의 제니퍼 캐버노 선임연구원과 작성해 지난달 공개한 보고서에서 전략적 유연성 문제와 주한미군 감축 문제를 연계하는 구상을 드러낸 바 있다.

콜드웰 등은 현재 약 2만8천500명 수준인 주한미군 중에서 지상 전투 병력 대부분과 2개 전투비행대대 등을 철수하고 약 1만명만 남겨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런 태세 재편이 필요한 이유 중 하나로 역내 전쟁이 발생할 경우 한국에 있는 미군 전력을 활용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거론했다.

한반도 외부의, 역내 다른 지역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미국이 한국에 있는 기지를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접근권을 한국이 제공하지 않았다는 주장이었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를 집권 1기때 검토했고,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방위비 분담금(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의 부담액) 대폭 인상 필요성을 거론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그가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한국 정부의 동의와 방위비 분담금 증액 문제를 주한미군 감축 문제와 본격적으로 연계하려 할 가능성을 주시해야할 상황인 것이다.

미국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한국의 보다 구체적인 지지 표명을 요구할 경우 한국은 대북 억제력 유지에 미칠 영향, 미국, 중국과의 양자관계 등을 두루 감안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대만해협 유사시 주한미군이 출동할 경우 한국이 중국의 공격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우려와, 대만해협에서 무력충돌이 발생할 경우 역내 미군 전력의 분산을 틈타 북한이 대남 도발을 감행할 공산이 커진다는 또 다른 측면의 우려를 두루 감안해 관련 협상에 나서야 할 전망이다.

아울러 한미동맹의 현대화에 부합하는 주한미군의 활동 반경 확대가 불가피하다면 중국과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할 소지는 피할 수 있는 적절한 입장 표명의 ‘형식’과 ‘표현’을 찾는 일도 중요해질 전망이다. /연합뉴스

## 美 뉴욕 타임스 스퀘어서 총격 사건...3명 부상

경찰, 17세 용의자 체포해 조사 중

미국 뉴욕 맨해튼 중심가의 다중 밀집 지역인 타임스 스퀘어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나 3명이 다쳤다고 뉴욕타임스(NYT) 등 미국 언론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30분께 타임스퀘어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나 각각 19세와 65세 남성이 허반신에 총상을 입고 18세 여성이 목에

참과상을 입었다.

이들은 모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이 지장은 없는 상태다.

경찰은 현장에서 17세 용의자를 체포하고 총기를 압수해 구금한 후 조사 중이라고 ABC 방송 등 현지 언론들이 전했다.

경찰은 용의자가 총기를 꺼내 쏘기 직전에 피해자 중 한 명과 말다툼을 했다는 목격자 증언 등을 바탕으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다. /연합뉴스

## 우주서 발육인 비행사들과 임무교대 NASA 비행사 귀환

9개월간 우주에 발이 묶였던 우주비행사를 교대하기 위해 떠났던 4명의 우주비행사가 9일(현지시간) 무사 귀환했다.

AP 통신 등에 따르면 미 항공우주국(NASA)의 엔 맥클레인과 니콜 에이어스, 일본의 오니시 타쿠야, 러시아의 키릴 페스코프를 실은 스페이스X 캡슐이 이날 오전 미 캘리포니아주 남부 해안 앞 태평양에 낙하산을 펼치고 착수(着水)했다.

국제우주정거장(ISS)을 떠난 지 하루만으로, 스페이스X 지휘센터는 무전으로 “집에 온 걸 환영한다”고 전했다.

이들 우주비행사의 귀환은 5개월 만이다. 이들 우주비행사는 지난 3월 당시 예정에 없이 9

개월간 ISS에 발이 묶였던 우주비행사 부치 월모어, 수니 윌리엄스와 임무 교대를 위해 ISS에 갔다.

월모어와 윌리엄스는 지난해 6월 보잉사의 우주캡슐 ‘스타라이너’의 첫 유인 시험비행에 참여해 약 8일간의 우주 체류 여정으로 지구를 떠났다. 그러나 ISS에서 스타라이너의 여러 기계 결함이 발견되면서 이 우주선을 타고 예정대로 귀환하지 못하고 지구를 떠난 지 약 288일 만인 지난 3월18일에야 지구로 돌아왔다.

최초 월모어와 윌리엄스를 태우고 우주로 갔던 스타라이너는 무인 상태로 돌아왔고, 월모어와 윌리엄스는 이들 4명이 타고 갔던 스페이스X의 우주캡슐 드래곤을 타고 귀환했다. /연합뉴스



가자지구에서 히마스에 의해 인질로 잡힌 이스라엘인 유족과 지지자들이 9일(현지시간) 이스라엘 텔아비브 키리아 군사 본부 밖에서 정부에 인질 석방 및 휴전 협정 서명을 촉구하는 시위에 참여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 이스라엘 수도서 가자시티 점령 반대 시위

10만명 이상 참여...몇달 새 최대 규모

이스라엘 수도 텔아비브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도심 지역인 가자시티 완전 점령계획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렸다.

로이터, AP 통신에 따르면 토요일인 9일(현지시간) 오후 가자시티 점령계획에 반대하는 수만 명이 텔아비브 거리로 나섰다.

시위 주최 측은 10만명 이상이 참여했다고 밝혔으며, 현지언론은 최근 몇달 새 가장 큰 규모의 반정부 시위라고 보도했다. 이들은 군사작전을 즉각 중단하고 인질들을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가자지구에 억류된 인질 율리 미란의 가족은 “이것은 단순히 군사적 결정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결정”이라고 호소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여론 조사상 이스라엘 국민

의 압도적 다수가 인질 석방을 위한 종전을 지지하고 있다.

가자전쟁 휴전의 불씨를 되살리기 위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네타냐후 정부는 국내외의 비판 여론에도 불구하고 가자시티 장악을 위한 군사작전을 밀어붙이고 있다.

영국에서는 불법 단체로 지정된 ‘팔레스타인 행동’에 대한 지지 시위가 벌어져 400명이 경찰에 체포됐다. /연합뉴스

## 남도밥상을 지키는 사람들

| 잊혀져 가는 남도음식의 맛과 멋을 총망라!  
남도음식의 산업화·세계화를 위한 기폭제 마련!

남도는 맛의 고장이다. 기름진 땅과 맑은 물에서 고운 햇살을 받으며 자란 청정 농수산품과 넉넉한 인심으로 맛갈스런 맛을 낸다. 이런 남도 음식중에서도 오랫동안 전해 내려온 향토음식을 엄선해 그 가치와 비법 등을 소개했다. 남도 음식의 새로운 진면목은 물론 산업화·세계화를 기대하면서~

구입문의 광주매일신문 사업본부(062-650-2078)  
입금계좌 광주은행(016-107-323257:예금주-(주)광주매스컴)  
정 가 20,000원